

월드컵 소식

국민 88% "아드보호 16강 간다"

21세기 스포츠포럼 설문

우리나라 국민의 88%는 독일월드컵 축구에서 아드보카트호가 16강 이상의 성적을 낸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21세기 스포츠포럼이 GSM21 스포츠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94명(남 738명, 여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8.3%인 965명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16강까지만 간다고 예상한 응답자가 531명(48.6%)으로 가장 많았

고 8강은 264명(24.1%), 4강 42명(3.8%), 결승 33명(3%), 우승 95명(8.7%) 등으로 나타났다.

우승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52.7%인 577명이 '삼바 군단' 브라질을 택했고 154명(14.1%)은 개최국 독일을 선택했다.

이어 영국(84명), 프랑스(50명), 아르헨티나(24명), 이탈리아(23명) 등의 순이었다.

또 755명(69.1%)이 '우리나라 경기를 모두 볼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국 경기 때 국내외에서 단체응원을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54명(41.5%)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지성, 미드필더 중 인기 12위

美 '폭스스포츠' 선정

한국 축구의 대들보 박지성이 미국의 한 스포츠채널이 실시 중인 '판타지 게임'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국 미드필더 가운데 12번째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폭스스포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월드 스커 2006 판타지 게임'에서 박지성은 미드필더 부문에서 전세계 네티즌들로부터 12번째로 많이 선택을 받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월드 스커 2006 판타지 게임'은 네티즌들이 이번 2006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32개국 선수들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임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현재 이 게임에 참여한 전세계 네티즌들 중 11%가 박지성을 자신의 팀에 포함시켰다.

이 게임은 각 포지션별로 많은 선택을 받은 선수들을 추려 '리더보드'를 만들어 네티즌들에게 선수를 선택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드필더 부문은 상위 12위까지가 리더보드에 오르는 커트라인으로 돼있다.

토고팀 추운 날씨·수두로 훈련 차질

축구협에 거액 출전료 요구도

토고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토고 축구협회에 거액의 출전료를 요구해 화제다. 로크 그나싱베 토고 축구협회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 출전비로 1인당 15만5천유로(한화 약 1억8천800만원)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달라고 하는 15만5천유로는 우리 나라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그나싱베 회장은 "독일에서 선수들과 격려금 문제를 놓고 상의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나싱베 회장에 따르면 토고 선수들은 또 승리 수당으로 3만유로(한화 약 3천600만원), 경기에 지더라도 그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수들이 바라는 금액을 맞춰줄 경우 토고 축구협회는 최대 600만유로를 준비해야 할 판이다. 토고 선수들은 올해 초 이집트에서 열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했었다.

한편 토고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수두와 추운 날씨로 인해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팀 주치의가 밝혔다.

독일 방면에서 훈련 중인 토고는 10°C 안팎의 쌀쌀한 날씨와 간간히 내리는 비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선수단 내부에 수두 전염 가능성이 발견돼 걱정에 휩싸여 있다. 토고 대표 중 가장 먼저 수두바이러스에 감염된 선수는 리치먼드 포르손으로 알려졌다. 요아킴 슈베르트 토고 팀 주치의는 "포르손의 상태는 좋지 않다. 열이 있는 데다 약간의 통증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잉글랜드 3 : 0 헝가리

지난달 3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트래포드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헝가리의 평가전에서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베컴(왼쪽)이 헝가리 수비수를 제치려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 2 : 0 앙골라

지난달 31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앙골라의 평가전. 아르헨티나 헤르난 크레스포가 앙골라 수비수 마누엘 로코(빨간 유니폼·가운데)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2 : 2 일본

지난달 31일 독일에서 열린 독일과 일본의 평가전. 독일의 미드필더 비스티안 스펠인스테인(가운데)과 일본의 미드필더 나카무라(왼쪽)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주 "형들 고마워요"

KIA, LG에 7대6 역전승



KIA 타이거즈의 막내 한기주(19)가 선배들의 도움으로 시즌 3승을 거뒀다.

한기주는 지난달 31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LG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동안 7안타, 4실점했으나 팀 타선이 폭발하며 7-6으로 역전,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3승 5패째.

한기주는 1회에만 5안타(1홈런)로 4실점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6이닝 동안 2안타만 내주는 안정된 제구력으로 팀 승리를 도왔다.

막내 한기주의 역투에 힘을 얻은 KIA 타선은 끈질긴 집중력을 보여줬고 행운의 여신도 힘을 보탰다.

KIA는 5회 1사 만루에서 이용규의 좌전 적시타로 2점을 따라 불어 추격의 불씨를 살려냈다.

2-4로 뒤진 7회에는 행운까지 뒤따랐다. KIA는 김민철의 볼넷과 이용규의 몸에 맞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31일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한대	26	16	0	0.619	-	2패
2	한화	25	16	1	0.610	0.5	2패
3	삼성	24	16	1	0.600	1.0	1패
4	SK	22	20	0	0.524	4.0	2승
5	KIA	20	19	1	0.513	4.5	1승
6	두산	17	22	2	0.436	7.5	2승
7	LG	15	26	1	0.366	10.5	1패
8	롯데	13	27	0	0.325	12.0	1승

는 공에 이어 장성호가 고의 사구로 걸어나가면서 2사 만루를 만들었다.

이어나온 이재주는 행운의 2루수 앞 내야안타로 3루주자 김민철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고백배론 이용규도 홈을 파고들었다.

이를 본 LG 1루수 최동수가 홈으로 뿌린 공이 약속구가 됐고 그 사이 장성호도 홈을 밟아 5-4로 승부를 뒤집었다.

방망이에 불이 붙은 KIA는 8회에도 김원섭의 3루타와 김상훈, 김종국의 2루타를 묶어 2점을 보태 승기를 잡았다. LG는 9회초 이종열이 2점홈런을 날렸으나 역전에는 실패했다. /박진표 기자hucky@kwangju.co.kr

KIA 서감독 "서브넵 퇴출"

"더이상 기회 줄 수 없어"

"서브넵은 도저히 안되겠어."

KIA 서정환 감독이 결국 그동안 미련을 못 버리던 '용병타자' 서브넵의 퇴출을 결심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 광주구장 KIA 덕아웃.

서 감독은 2군으로 강등된 서브넵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회를 줄만큼 줬는데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서 감독은 지난달 18일 서브넵을 2군으로 강등시킨 뒤 김종모 타격코치와 팀에 한명뿐인 통역 이익중씨까지 서브넵

을 전담 지원토록 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 감독의 전폭적인 지원도 서브넵이 한국야구를 적응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서브넵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동안 성남 삼우구장에서 열린 삼우와의 2군 경기에서도 7타수 2안타(1홈런), 2볼넷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

서 감독은 "서브넵이 살아나길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무대에서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새로운 용병타자를 데려온다해도 빨라야 6월말쯤인데, 결국 올 시즌은 용병타자 없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진표 기자hucky@kwangju.co.kr



1일(목)

▲메이저리그<뉴욕Y-디트로이트>(07:55·Xsports)

▲정통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공주고-효천고>(10:00·MBC ESPN)

▲월드컵 출전국 평가전<잉글랜드-헝가리>(14:00·MBC)

▲대학장사 씨름한마당 단체전(14:00·MBC ESPN)

▲여자농구 프리리그<신세계-신한은행>(16: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니혼햄-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LG>(18:30·MBC ESPN), <한화-두산>(18:00·KBS SKY SPORTS)

2일(금)

▲독일월드컵 국가대표 평가전<한국-노르웨이>(01:30·KBS2)

▲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1R(04:30·SBS스포츠)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한 여자가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다. 남편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동안, 아내가 남편의 돈을 훔쳐 갔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훔쳐 갔다고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찾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찾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찾지 않았다.

☎ 060-700-3658

**마시면 쏘~옥 빠지는 프랑스 커피**

프랑스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프랑스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프랑스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프랑스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프랑스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 02-335-6801